



직업교육을 선도하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송만영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장

- 충남대학교 기계공학교육과 학사
- 경주대학교 전산교육 석사

- 포항흥해공고 교감
- 경북교육청 장학사

한 국원자력마이스터고는 1968년 평해상교로 개교하여 평해실업고, 평해공고로 교명이 변경되었으며, 2013년 3월 마이스터고로 전환하여 46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배움이 즐겁고 모두가 성공하는 취업 명품학교'를 비전으로 현재 재학생 227명 모두가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66명의 교직원이 열정으로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그림 1]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등학교 전경

본교는 학년별 기계과 2반, 전기제어과 2반, 전체 12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과는 기계분야에 관한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설비보전, 용접, 기계설계 CAD, CNC 선반-밀링, 공유압 등을 실습하며, NCS실무과목 이수를 통한 과정평가형 기계정비산업기사, 설비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공유압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원자력 설비 및 기계 관련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전기제어과는 일상에서 전기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내선공사, 전기기기 제작, 전기설비, 자동제어시스템 등을 실습하며, 전기기능사, 생산자동화기능사,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에너지 관련 및 전기 분야 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진로교육〉

본교는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학년 초에 학생이해 기초조사 및 학생상담 활동, 표준화 심리검사를 실시하여 개인별 심리 상황을 제공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제동행 진로 직업 체험(아로마테라피스트), 진로인성캠프, 기업가정신 함양캠프, 진로코칭 캠프 등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을 실시하여 비전을 담은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학습플래너 작성을 통해 학생 자신에 대한 성찰과 이해를 돕고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학교 내외의 다양한 진로활동에 대한 활동내역을 개인별 포트폴리오로 작성하고 졸업인증제도인 월송5품제와 연계하여 진로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졸업 후 산업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와 1:3 매칭 진로멘토링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현장전문가와 3회 이상 활동을 하고 매회 활동 결과물을 포트폴리오 작성하여 기업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교 졸업 후 진로교육은 커리어넷, 워크넷, 고용정보원, 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선취업 후학습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기업에 근무하면서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선취업 후학습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인성교육〉

본교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 대해 학생들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학생자치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 학생자치회는 생활규칙을 제정하고 학교축제를 기획·운영하며 각종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민주 시민적 가치를 내면화하게 되며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을 함양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바른 인성에 대한 교육을 특별히 강화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바른 인성 덕목에 대해 고민하고 그 생각을 모아 함께 공유함으로써 올바른 인성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경북청소년활동진흥원과 연계하여 연 2회 봉사활동 정신 함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바른 성인식을 바탕으로 언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표어 공모전은 학생들이 인성 덕목을 주제로 표어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공감을 많이 받은 표어를 선정하여 생활 속에서 공유하는 활동이며, 편지쓰기를 실시하여 바른 언어로 자신이 그동안 감사한 대상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본교의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최종 목표인 우수한 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관련 방과후학교 강좌를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년별, 수준별, 학생 희망별로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NCS직업능력향상반, 자격증 취득반, 공채대비반, 기업면접대비반, 삼성디스플레이반, 한수원대비반 등의 강좌를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개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취업률 96.9%라는 취업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방과후학교가 학습에만 편중되지 않고 학생들의 인성과 학습이 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성격의 인성방과후학교와 자격증 취득과 회사별 공개채용 대비를 위한 학습방과후학교로 방과후학교를 이원화하여 학생들이 인성과 능력을 고루 갖춘 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방과후학교 강좌인 농구, 통기타, 공예, 과학탐구, 풋살, 목조각 등의 다양한 강좌에 외부 전문강사를 확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구글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온라인 방과후학교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취업교육〉

본교에 입학하는 학생 전원은 졸업후 취업을 목표로 한다. 학생이 입학하면 우선 학생성장경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이 취업할 기업을 선택하고, 취업준비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안내한 후, 외부 컨설팅, 선후배교류프로그램, 스터디그룹 운영, 취업캠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수업시간에 교과를 재구성하여 기업분석, 자기소개서 작성법, 발표 면접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무분석 발표대회, 매월 NCS직무능력평가, 기업맞춤 방과후학교 운영, 산학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다.

본교 학생들의 주요 취업처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5대 발전사 등 11개의 발전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9개 공사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6개 공단, 삼성전자, 포스코, KT&G 등 대기업과 산업 현장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강소중견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 실적은 마이스터고 전환 후 6년간 졸업생 463명 중 96.9%가 취업하였고, 졸업생 중 53.3%인 242명이 공기업, 대기업에 취업하였다. 비결은 다년간 공기업, 대기업 취업 경험을 축적하였고, 선호도가 높은 기업에 취업한 실적, 취업 후 성장이 보장되는 강소중견기업 취업처 확보, 그리고 졸업생들이 산업현장에서 안



[그림 2] 기술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며, 특히 선생님의 헌신적인 지도와 우수한 학생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다.

직업계 학교의 역량은 취업실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직업교육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산업현장 발전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융

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코딩교육, 스마트팩토리 응용 기술 등을 교육과정에 도입할 예정이다. <배움이 즐겁고 모두가 성공하는 취업명품 학교>라는 비전과 함께 <미래 직업역량과 인성을 갖춘 기술전문가를 육성>하는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를 만들어 가고 있다. **KIIF**